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투표함 2개 개표소로	사회	-
2	선관위, 철수하며 개인정보 방치까지...음모론 빌미만 제공	사회	-

(1)기사/뉴스요약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투표함 2개 개표소로

[앵커]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사흘째 이어지던 투표소 봉쇄가 오늘(5일) 풀렸습니다.

투표소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켰습니다.

개표하지 못한 투표함 두 개가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치와 해산 상황을 이도윤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위해 투입된 노란 버스와 경찰을 유튜버 등 시위대가 가로막습니다.

시위대 봉쇄로 투표함 두 개가 사흘째 고립된 상황.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해산을 명령합니다.

선거 사무 종사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선거 시설을 부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는 출입구를 가로막고 스크럼을 짚습니다.

20분간의 대치 끝에 결국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떼어 내 이동시켰습니다.

40분 만에 출입구를 확보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투표소에 진입했고, 투표함 2개는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위대는 철수하는 경찰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지속되는 사이 잠실 투표소에선 어지럼증 등 경증 환자 7명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처치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시위 참가자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는 글이 퍼졌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사흘째 이어지던 투표소 봉쇄가 오늘 풀렸다.

(2)기사/뉴스요약

선관위, 철수하며 개인정보 방치까지...음모론 빌미만 제공

[앵커]

그런데 선관위는 오늘(5일)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위대가 아무 제지 없이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투표소 안엔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위대/음성변조 :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찾는다며 선거 물품 상자를 뒤지기도 합니다.

[시위대/음성변조 : "빨리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밖에서도 자꾸 못 챙겨."]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유투버가 실시간 중계하며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음성변조 : "개인 정보. 지금 기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과거 쇼핑백과 소쿠리에 표를 담았던, 이른바 '소쿠리 사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방치까지.

부실한 선거관리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선관위의 반복되는 실책이 음모론적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선관위가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가면서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항저우 6룡	항저우 기반의 6대 신생 테크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난 2024년 연말 중국 테크 업계에서 '항저우 류샤오룽(육소룡)'이라는 신조어가 퍼졌고 이후 업계에 널리 알려졌다. 화제의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항저우 6룡 중 하나다.	시사상식 사전
2	프로젝트 글라스윙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이 주도하고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웹서비스(AWS)·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가 참여해 출범한 사이버 보안 협력 이니셔티브다.	시사상식 사전